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 출범식 5일 개최

- 1부 : 사각지대 일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증진 현안 청취 ‘너목들 공감토크’
- 2부 : 양대노총, 여성·청년, 비정규, 플랫폼노동 등과 연대하는 범노동 통합 노동위원회 출범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상임위원장 : 김주영, 안호영, 신승철)는 5일(수) 13시 30분 전태일재단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 출범식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전·현직 위원장과 노동존중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원장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 사전행사 격으로 진행된 1부에서는 △ 단기계약 아르바이트 노동자 △ 아파트 경비노동자 △ 비정규직 보조출연자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생생한 발언, 이후 이재명 정부의 관련 과제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2부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영상축사를 통해 대전환 선대위 노동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맞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또한, 퇴행적인 노동관을 가진 집단과의 승부에서 노동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송영길 대표는 축사에서 “2022년 3월 9일,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노동 양극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철학 있는 정부” 수립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차별 없는 일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노동자 출신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김주영, 안호영, 신승철 상임위원장은 공동으로 “이재명 후보를 통해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 며 “노동위원회 참여자가 모두 ‘내가 이재명이다’ 라는 각오로 4기 민주정부 수립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디지털 전환시대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확대에 노동자 출신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고, △이번 대선에서 반노동 집단과의 대결에서 노동위가 앞장서 승리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끝)

붙임 : 1. 출범선언문 1부

2. 행사 사진 (별도 첨부)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노동선대위 출범선언문

소년공 이재명의 꿈. 모든 노동자의 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팔은 굽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시골 소년 이재명은 공장노동을 하다 프레스에 팔이 찍혀 산재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창시절 꿈을 키워나갈 사춘기에 겪었을 소년공의 절망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검정고시와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고 노동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이재명. 성남시 공공의료원 설립 투쟁과정에서 자신의 굽은 팔로 굽은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으로 정치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처한 일상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그의 신념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 수행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실사구시와 현장성.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의 정치는 오늘날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만든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역강부약”의 이재명 노동철학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실현되었습니다.

노동있는 대선을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나갑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발전은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정치가 바로잡지 못했다면 그것은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결과입니다. 주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노동있는 대선을 위해 노동선대위가 앞장서 나갑시다.

노동존중 사회를 넘어 모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행복 사회로!

이재명 후보와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차별 없는 일터,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도 적정소득을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질병과 산재, 해고가 두렵지않은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갖춘 사회연대의 나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사표를 통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동환경”을 약속했습니다. 살기 위해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겠다는 소년공 이재명의 꿈이야말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꿈이며, 누구보다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자 출신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응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목전에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집단을 심판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승리하는 노동있는 대선을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나를 위해 이재명! 노동을 위해 이재명!
노동은 이재명입니다!**

2022. 1. 5.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출범식 참가자 일동

[붙임 2] 현장 사진





